

광주형 일자리 '날개' 달았다

산자부,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최종 선정
세제 혜택·투자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 기대

대한민국 최초로 '노(勞)·사(使)·민(民)·정(政)' 상생을 통해 자동차 공장을 짓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날개를 달았다. 정부가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공식 선정하고, 세제 혜택을 비롯한 투자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제1차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최종 선정했다.

이날 심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항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추진사항을 보고한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사회통합형 노사상생의 일자리 사업으로 기업은 적정임금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에게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보육·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임금을 제공해 실질 소득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이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갖는 의미와 가치 등을 설명해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 시장의 설명처럼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에 기반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공식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혜택 및 투자보조금 지원 등 다

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한 뒤 올해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선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법 개정 이후 공식 선정된 첫 번째 사례다. 심의위는 상생 요소, 사업 지속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완성차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합작법인 광주 글로벌모터를 설립하고, 3년간 자기자본금 포함 5754여억원을 투입해 빚그림 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2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완공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 2022년부터 연간 10만대 규모의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생산할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는 총 37개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자기자본금 2300억원 중 광주시는 483억원(21%·1대 주주), 현대차는 437억원(19%·2대 주주)을 투자했다.

합작법인은 내년까지 908명을 정규직으로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협력업체 등 간접 고용효과를 포함하면 1만 2000여개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정부

와 광주시는 전망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주 44시간 근무에 기존업체 급여의 절반 수준인 3500만원 안팎의 연봉으로 받는 대신 정부와 광주시로부터 주거·교육·의료 지원 혜택 등을 받는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부품인증 관련 지원을 하는 한편 노사동반 성장 지원 센터 및 직장 어린이집 건립 등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역도 심의·선정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밀양, 구미, 대구, 강원, 군산, 부산 등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추진 중이다.

전국 첫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을 이끌어 낸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번째 사업인 완성차 공장 사업이 전국 최초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지자체 주도 사회 통합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노동계, GGM, 현대자동차와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성공시켜 한국경제가 직면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대립적 노사관계 극복을 통한 한국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성운모 산업부 장관은 "공장이 가동하면 지역 부품업체가 참여해 광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산업 측면에선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을 유치해 완성차 생산에도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투표에 차를 기다리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왼쪽부터),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국방위원장 민홍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 /연합뉴스

법사위원장 윤호중·외통위원장 송영길

민주당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기재 윤후덕·국방 민홍철·산자 이학영·복지 한정애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극한 대치 속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4면>
미래통합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6개 상임위원회위원장을 선출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표결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윤호중, 기획재정위원장에 3선 윤후덕, 외교통일위원장에 5선 송영길, 국방위원장에 3선 민홍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3선 이학영, 보건복지위원장에 3선 한정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려면 상임위원 전체 명단이 있어야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미래통합당이 제출하지 않은 6개 상임위원 명단을 강제 배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안전 상정에 앞서 "오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부터 구성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표결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은 역사에 국회가 없어진 날이고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라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놓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자 여당인 민주당이 자당 몫으로 정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21대 국회는 국회의장·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 구성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배제된 채 '반쪽 출발'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여야의 협치보다 대치 구도가 형성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당의 밀어붙이기와 야당의 강력 투쟁이 맞물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남북이 함께 돌파구 찾아 나설 때가 됐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최근 군사도발을 시사하며 남북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오랜 단절과 전쟁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멈춰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며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6·15 선언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할 엄숙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 대결의 시대로 되돌리려 하시는 안된다"며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안다"며 "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건이 좋아지지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며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아파트 분양사기 피해 '눈덩이' ▶6면

굿모닝 예향-남도 한바퀴 '강진' ▶18-19면

타이거즈 전광대 - NC를 잡아라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BRO&T!PS

기름진 형 피부엔?

브로앤팁스 네버오일리 올인원

NEVER OILY

ALL IN ONE

• 전국 아리파움 매장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 브로앤팁스 공식홈페이지 | www.brontips.com • www.instagram.com/brontips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